

대전 중앙시장은 경쟁력 있는 특성화 거리가 될 수 있는가

For the Daejeon Joongang Market To Be a Successful Urban Street



韓 弼 元 / ATA 대표 ·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Han, Pilwon / ATA · Professor of Hannam University
hpw@hannam.ac.kr

1. 대전 원도심의 위기와 특성화 거리 조성

흔히 '원도심'이라 일컬어지는 대전 구도심 지역은 대전천을 가로지르는 '대전역-충남도청'의 동서축, 곧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인효로, 서쪽으로 명정로, 북쪽으로 우암로, 남쪽으로 대흥로 등 외곽의 네 대로로 구획되는 장방형에 가까운 권역이다. 이 원도심은 대로 또는 중로로 구획되는 16개의 큰 블록으로 구성된다. 근대 이후 대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온 원도심은 1988년부터 둔산지구가 개발되어 새 도심의 역할을 하면서 급속히 쇠퇴하여 왔다.

대전에서 '특성화 거리' 정책은 원도심의 쇠퇴에 대한 대책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래서 대전 도심을 걷다 보면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한복거리, 한의약거리, 인쇄거리, 공구거리, 먹자골목 등 다양한 이름의 가로를 만나게 된다. 특성화 거리 정책은 재개발로 원도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시도의 반대편에 있는 점진적인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집적된 도시의 기능을 드러내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이고, 기존의 도시 질서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생태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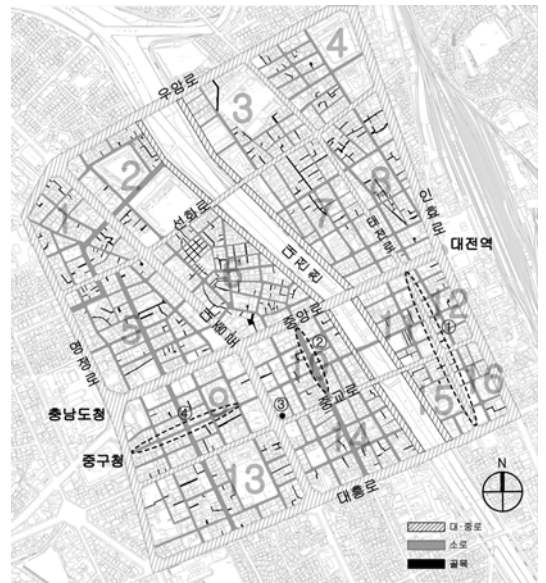
필자는 이 글에서 대전의 가장 중요한 특성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이 안고 있는 갈등 그리고 그것을 경쟁력 있는 특성화 거리로 만들려는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필자는 중앙시장의 거주자(상인), 이용자(시민) 그리고 정책가(해당 지자체장인 대전시 동구청장)를 두루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2. 중앙시장의 갈등

1948년 1월 11일 대전시는 중앙도매시장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중앙시장의 모태이다. 현재 중앙시장은 '중앙시장길'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4천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한 마디로 중앙시장에는 없는 게 없다. 무엇보다도 대전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 가장 복잡한 길을 보려면 중앙시장으로 가면 된다.

중앙시장 이용자들은 중앙시장의 가장 큰 강점으로 원 재료 또는 중간 가공 단계의 물품이 풍부하고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선점이 많다는 점을 꼽는다. 최근 손수짜기(DIY; Do It Yourself)



대전 도심 지도
① 중앙시장길 ②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③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④ 문화예술의 거리

산업이 신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중앙시장의 큰 잠재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앙시장의 잠재적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중앙시장에는 강점보다 약점이 더욱 많은 것 같다. 직장이나 집에서 멀다, 주차가 어렵다, 불편절하다,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밤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 청결하지 못하다, 쇼핑카트가 없어 불편하다 등등.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중앙시장에 갈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전 도심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전 도심의 북서-남동 방향으로 관통하는 대전천은 현재 도심공간 이용의 경계가 되고 있다. 대전천의 서쪽은 젊은층으로 그 동쪽은 중년층 이상으로 나뉜다. 그래서 대전천의 동쪽에 있는 중앙시장은 그것을 이용하는 세대가 중년층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필자는 이것을 '대전천의 복수'라고 부른다.

1970년대 초 중앙로를 중심으로 대전천의 일부가 복개되고 흥명상가와 중앙테파트(현 동방마트)라는 신식

백화점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근래에는 하상도로가 나고 곳곳에 대형 집단주차장이 만들어져 대전천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힌 대전천은 복수를 시작했다. 1977년, 대전천이 복개되자마자 대전천은 범람이라는 복수의 매운 잽을 날렸다. 복개를 하느라 수백 개의 교각을 세웠으니 하천의 통수 기능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케릴라성 폭우가 내리면 대전천은 범람을 피할 수 없다. 하상 주차장의 차가 떠내려가 교각에 걸려 대전천이 큰 저수지가 되지 않는 것이 다행일 따름이다.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12년 목척교로 극복되었던 대전천이 이제는 다리로는 극복하지 못할 돈 비란내 나는 복수를 하고 있다. 하천이 도시를 나누는 심리적인 경계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부턴가 대전 도심에서 대전천의 동쪽과 서쪽을 걷는 이들의 연령대가 나뉜다. 대전천의 동쪽에는 40대 이상의 늙수그레한 사람들 일색이다. 그들은 돈 무서운 줄 안다. 그래서 그곳의 중앙시장은 장사가 잘 안 된다. 대전천의 서쪽에는 30대도 좀 있지만 10대와 20대들이 판친다. 그곳에는 패션상가들이 많다.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구매력 있는 젊은이가 많이 오가니 장사가 된다.

3. 가까이 있는 선례들

중앙시장을 특성화 거리로 활성화 하는 데 참조가 될 만한 일들이 이미 대전 도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는 그 중 두 가지를 소개한다.

하나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이하 으능정이 거리)' 조성이다. 중앙로와 직교하는 폭 14m, 길이 250m의 이 가로는 1996년 특성화 거리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관 주도의 이 사업은 가로의 고객을 10·20대로 특정함으로써 적어도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였다. 필자가 만난 젊은이들은 예외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가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 옷 사고, 먹고, 마시고, 친구를 만나기에 딱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재방문은 중앙시장이 갖지 못한 최대의 약점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한 가지를 빼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문화 활동이다. 그들은 이런 문제를 '으능정이 거리에는 사실 볼거리가 없다'고 표현한다. 패션쇼나 풍물 같은 연출된 이벤트나 축



중앙시장길



중앙시장의 건물 내부 모습

제가 간혹 있지만 일상적인 관점에서 으능정이 거리에는 소비문화만 있을 뿐 생산적인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야말로 문화와 거리(距離)가 있는 거리이다.

비슷한 이름의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다. 중구청 앞에서 대종로에 이르는 길이다. 이곳은 화랑과 화방 등이 집중되어 있어 이름에 걸맞은 가로이다. 그런데 이곳은 으능정이 거리와 대조적으로 언제나 한산하다. 이 두 문화의 거리는 비록 근접해 있기는 하나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으능정이 거리의 넘치는 인파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유입되지 못한다. 두 가로에 집중되어 있는 상업과 문화 시설은 서로를 외면한 채 나뉘어 있다.

가로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이어지고 흘러야 한다. 그러나 대전 도심의 특성화 가로 정책은 하나하나의 가로를 부각시키는 데 몰두하였을 뿐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연계하여 유기적인 도심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맹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암시하는 하나의 사건이 최근 대전 도심에서 있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참조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이다.

2005년 9월 23일에서 11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6년 가까이 비어있던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건물(등록문화재 100호)에서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대전시립미술관과 ATA가 공동주최한 '산책 - 건축과 미술'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방치되었던 도심의 오래된 건물, 그것도 도심의 문화유산 건축물에서 개최된다는 점 때문에 이 전시회는 지역문화계의 관심을 모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시회가 개최된 건물이 두 거리, 곧 으능정이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를 맺어주는 연결고리 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이다.(그림1 참조)

중앙로와 대종로의 교차로, 곧 중앙로네거리에서 남쪽으로 세 블록 떨어진 은행네거리에 있는 '구 농산물품질

관리원 충청지원'은 1958년 건축가 배한구(1917~2005)의 설계로 지어졌다. 배한구 선생은 대전에서 가장 먼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가이다. 이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산책 - 건축과 미술'전을 계기로 대전시가 건물 소유자인 국가보훈처로부터 건물을 인수하여 현재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건물이 문화공간으로 재생된다면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문화공간이 대종로를 넘어 으능정이 거리 쪽으로 스며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거리가 연계되어 도심이 활기를 찾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중앙시장이 가야 할 길

중앙시장은 경쟁력 있는 가로가 될 수 있는가? 가로의 특성화를 통해 상업적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중에 대전시 동구청장과 지역의 미술가들을 만나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중앙시장이 앞으로 제 갈 길을 잘 갈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중앙시장이 속한 지자체의 수장인 이장우 동구청장은 중앙시장이 어떻게 특성화 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탁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여 놓았다. 동구청장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중앙시장의 중심 가로를 정비하여 그것의 영향력을 중앙시장의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중심 가로는 중앙로에서 중교로에 이르는 중앙시장길의 북쪽 절반이다. 그곳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바다, 간판, 가로등, 노점상 등의 가로 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중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이미 동구청의 전략사업팀 안에 재래시장 육성팀이 조직되어 있으며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 한다.

동구청장의 '차 없는 거리' 구상은 중앙시장의 문제를 풀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한다. 차 없는 거리의 위력은 이미 으능정이 거리에서 보았다. 중앙시장은 지금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상태지만 사람과 자동차가 뒤섞여 위험할 뿐 아니라 쇼핑 카트도 끌고 다닐 수 없다. 중앙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장이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쇼핑 몰 개념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현재 매장·보도와 차도 사이에 난 바다 단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십여 명의 작가가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채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가협회는 중앙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낼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말 동구청장의 계획대로 중앙로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시점에 맞추어 가칭 '시장도 보고 전시도 보고'라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작가만 참여하는 전시가 아니라 전국전 또는 국제전으로 구상되고 있다. 이런 문화 행사가 가로에 활성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미 '산책 - 건축과 미술'전에서 확인된 바 있어서 더욱 기대된다.

사실 중앙시장을 비롯한 대전 원도심의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원도심과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문화의 현장에서 멀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이다. 철없이 보이는 십대들이 으능정이 거리에 문화가 없다고 비판하는 마당에, 점잖은 고객들이 문화의 자취는 간 데 없는 곳을 단지 물건 값이 싸다는 이유로 찾을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원도심에는 아기자기한 전시장과 공연장들이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것들이 중앙시장이나 으능정이 거리 같은 상업공간을 찾는

많은 이들의 눈길에 닿을 때 원도심은 경제적 위축과 문화적 소외에서 동시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타당한 생각과 계획 그리고 미술가들의 애정과 기여, 이것들로 중앙시장은 긴 갈등에서 벗어나 힘 있는 특성화 거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산책 - 건축과 미술'전에 출품된 유동조의 작품. 밤에는 오랫동안 외면되었던 건물의 외벽에서 영상설치 작업이 빛을 내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